

童詩 고향집

- (만주에서 불은) -

헌집신작 꿩을고

나여기 왜왔노

두만강을 건너서

쓸쓸한 이땅에

×

남쪽하늘 저밑엔

따뜻한 내고향

내어머니 계신곳

그리운 고향집.

一九三六、一、六

고향집

- 만주에서 부른 -

헌짚신작 꼬을고

나여기 왜왔노

두만강을 건너서

쓸쓸한 이땅에

×

남쪽하늘 저밑엔

따뜻한 내고향

내어머니 계신곳

그리운 고향집.

1936. 1. 6.